

KP케미칼, “매각은 됐지만 아직...”

본계약 체결 후에도 후속작업 남아 있어 ... 현장에는 별다른 반응 없어

현대석유화학 분할매각에 이어 KP케미칼의 호남석유화학 최종인수가 확정되면서 화학산업계를 둘러싼 언론의 보도가 붓물을 이루는 가운데 현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P케미칼 관계자는 “8000억원이 넘는 큰 거래이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 했던 돌발요인들이 산재해 있었고 이에 따라 협상이 몇 차례 연기 되면서 무덤덤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자체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선에서 활동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별다른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어차피 계약이 결론지어 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시간이 좀 흐르면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일지 않겠나?”라고 덧붙이면서 회사 내 분위기에는 큰 반향이 없다고 표명했다.

그동안 KP케미칼은 2001년 고합에서 분리된 후 2003년 영안모자, 인디아 Reliance 등과의 매각 협상이 가격을 둘러싼 채권단과 참여기업 간 이견으로 2차례나 무산됐었다.

또 2004년 초 호남석유화학과의 중국계 자본인 KC홀딩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장치혁 전 고합 회장이 KP케미칼 채권단을 상대로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한편, 호남석유화학과의 본계약 체결에 따라 KP케미칼의 매각작업은 44개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결의 절차 등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7/30>